(4) 송익필의 문학과 직(直)의 철학

강민우: 선생님의 학문은 예학에 힘써 기호 예학의 비조가 되었다지요.

송익필: 저의 불운에도 불구하고 10권이나 되는 문집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저에게서 예학을 전수받은 기호 예학의 종주인 김장생과 그 후손들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로써 저의 학문적 공이 인정되어 사헌부 지평으로 증직됩니다.

강민우: 선생님의 빼어난 자질, 해박한 학문, 꿰뚫어 보는 식견, 정미한 분석력은 성리학자로서 천부적 자질을 갖춘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선생님의 학문을 엿볼 수 있는 것은 「태극문답(太極問答)」과 「현승편(玄繩編)」에 있다지요.

송익필:「태극문답」은 난해한 성리학을 81항에 걸쳐 문답식으로 간명하게 해설하여 후학의 이해를 도운 것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태극을 리의 존칭으로 보아 유학을 옹호하고, 도교와 불교를 기로 보아 배척합니다. 또한「현승편」상·하권은 이이·성혼 등과 왕래한 서신을 모아놓은 것으로써 이들의 성리학적 깊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황처럼 사단과 칠정을 두 개의 정으로 구분하지 않고, 사단은 리만을 가리켜서 말한 것이고 칠정은 리와 기를 겸하여 정의 전체를 말한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이이의 '기발이승일도설(氣發理乘一途說)'과 '칠정포사단(七情包四端說)'과 상통하는 것입니다. 실재하는 정은 칠정 하나이며, 그 가운데서 선한 부분만을 말한 것이 사단이라는 뜻입니다.

강민우: 이황과 이이에 의해 전개된 이기심성론이 사변적이고 주지적인 데 반하여, 선생님은 이론보다 실천을 중시하는 예학을 발전시켰던 것이지요.

송익필: 이이가 리와 기를 하나로 보아 그의 이기심성론을 전개한 것과 달리, 저는 예를 강조한 나머지 리와 기가 떨어질 수 없음을 알면서도 리는 선하고 기는 악한 것으로 보아 기를 리에 종속시킵니다. 이에 리와 기를 성과 정, 선과 악으로 구분합니다. 악의 근원이 되는 기(또는 정)를 절제하여 리(또는 성)로 환원하기 위하여 기가 발하여 중절하는 화(和)를 중시합니다. 이에 저의 학문은 행위에서 '화'를 성취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예학에 힘씁니다. 이황이 실천을 중시하여 경(敬)의 철학을 전개한 반하여, 저는 실천을 중시하여 직(直)의 철학을 전개합니다.

강민우: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직'이란 무엇입니까.

송익필: '직'은 하늘이 부여하고 사물이 부여받는 것입니다. 하늘이 부여하는 리와 사물이 부여받은 성의 내실을 '직'으로 봅니다. 사람들의 일상생활은 '직'의 실천입니다. 학문에 있어 마음을 보존하고 기르는 존심(存心)과 반성하고 살피는 성찰(省察)도 '직'의 실천으로 봅니다. '직'은 천지와 고금을 일관하는 것으로 '직'으로 살고 '직'으로 죽어야 하며, 인간 윤리의 근본이 되는 오륜(五倫)도 '직'으로 봅니다.

강민우: '오륜'은 부모와 자식, 임금과 신하, 남편과 아내, 어른과 어린이, 친구 간의 관계와

같이 인간관계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다섯 가지 실천 덕목으로, 부자유친(父子有親)·군신유의(君臣有義)·부부유별(夫婦有別)·장유유서(長幼有序)·붕우유신(朋友有信)을 말합니다. 이러한 인간관계에 필요한 실천 덕목이 바로 '직'이라는 말씀이군요.

송익필: 천지가 만물을 낳는 것도 직이요, 성인이 만사에 응하는 것도 직입니다. 저의 실천 윤리인 예학은 '직'의 실천으로, 직을 실천하여 퇴폐한 풍속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직'을 위하여 물러서지 않는 과감한 태도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저를 서인의 주모자로 지목하고, 조헌(趙憲)·이귀(李貴)의 상소도 모두 저의 농간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강민우: 그래서 벗에 대하여 '직'의 도리를 다하여 이이에 대한 탄핵을 막으려 하였던 것이 군요. 또한 재상인 정철의 결함을 엄하게 지적하여 벗에 대한 도리를 다하였군요.

송익필: 직의 철학은 제자인 김장생에게 전수되니, 김장생은 매양 '직'한 글자로 마음을 세우는 요건으로 삼았으며, 송시열에 와서는 '직'의 실천이 더욱 강조되어 그의 학문이 직의 철학으로 집성됩니다. 공자-맹자-주자로 전래된 '직'의 학통은 조선에서 송익필-김장생-송시열로 이어집니다.

강민우: 선생님의 재주는 학문뿐만 아니라 문학에서도 출중하다지요. 7~8세 때부터 붓을 대면 남들이 놀라고, 이산해와 이이 등 여러 사람의 문장과 대등하게 일컬어졌다지요.

송익필: 저는 예학자로서 문학에 전업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늙도록 부지런히 독서하여 문장과 시문에 뛰어난 듯합니다. 저의 문장은 『좌전』과 『사기』의 문체를 닮아 간명하면서도조리가 정연하고 변화가 자재합니다. 특히 전기체에 뛰어나며 은아전(銀娥傳)은 후에 쓰이는 각종 전기 소설의 선구자가 됩니다.

강민우: 선생님의 시는 당시 8대 문장가로 이름을 떨쳤다지요.

송익필: 을사사화 후에 정치적 타락으로 인하여 백성의 고통은 최악에 달합니다. 이에 젊은 학자들이 울분과 실의를 해소할 탈출구로 몇몇 지인들과 시단을 조직하여 산수 간에 노닐며 시와 술로써 시름을 달랬던 것입니다.

강민우: 선생님의 유남악(遊南嶽) 한 수를 읊어보겠습니다.

돌아가는 길은 푸른 소 멍에 맨 신선인 듯. 歸路駕靑牛 (『고봉집』권2)

세속 밖을 노니는 몇몇 지기, 깊은 산골 속의 꽃과 물소리는 마음을 씻어주고 한가롭게 합니다. 잔 들고 수다 떨다 굽어보니 잔에 어린 산의 모습, 옷깃으로 스며드는 긴 바람은 마음을 시원하게 합니다. 흰 구름이 뭉게뭉게 이는 속에 돌아오는 그들은 이미 세속인이 아니라, 푸른 소를 멍에에 멘 신선이 됩니다.

송익필: 이것은 퇴폐한 정치와 민생고 속에서 사회 진출이 막힌 젊은 선비들의 현실에 대한 직시이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시와 술로써 달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울분을 신선으로 승화시켰으나 현실 극복을 위한 과장에 불과합니다.

강민우: 이들은 모두 강한 자아의식과 현실극복이라는 과제로 시단을 조직하여 당시 사회적· 정치적 불만을 해소하였군요.

송익필: 무이 시단의 계원으로는 저를 비롯하여 최립(崔岦)·최경창(崔慶昌)·백광훈(白光勳)·하응림(河應臨) 등 신분이 낮은 사람들과 이산해·윤탁연(尹卓然)·이순인(李純仁) 등 관료 문인들입니다.

강민우: 8대 문장가 중에서 중심인물은 연령·학문·문학적 지위로 보나 선생님으로 보입니다.

송익필: 저의 시는 다른 사람들의 시와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들은 꾸밈에 힘써 아름답고도 기이하지만, 이는 꾸밈이요 성정이 흐르지 않아 흥취를 느낄 수 없습니다. 저의 시는 깊은 학문으로서 화평하고 해박한 속에서 꾸밈없이 성정이 유출되어 평담합니다.

장민우: 선생님은 수양의 방법으로서 허정(虛靜)을 중시하였다지요.

송익필: 허정의 심리상태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욕심을 씻어버리고 고요함 속에서 직관하고 깊은 내면의 세계를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허정의 속에서 사물을 대할 때 물아(物我)가 일 치되어 그 속에 몰입함으로써 마음은 낙천적이고 세상의 일에 달관하게 됩니다. 이 같은 저의 시를 가리켜 허균은 청절(淸切)하다고 평가합니다.

강민우: 물아의 경지에서 자연과 일치하여 참모습을 드러낸 것이라는 말씀이군요.

송익필: 청(淸)이란 물아의 경지에서 참모습을 드러낸 것으로, 시인의 생명력이며 시의 최고 요건입니다. 저의 시가 평담하고 청수한 것은 깊은 수양으로 성정의 조화를 이룬 데서 온 것입니다. 허정은 침착하여 사물을 대할 때 물아일체(物我一體)가 되어 자연을 즐기게 됩니 다. 이러한 문학의 활동을 통하여 내적인 정신세계를 즐김으로써 현실의 모든 어려움을 극 복하고, 나아가 도를 즐기는 낙천주의가 됩니다.

장민우: 그래서 선생님은 주관적인 정감을 읊어 이백(李白)의 시와 방불하다는 평가를 받는 것이군요.

송익필: 저는 이백의 시에 화운한 작품이 많습니다. 저의 시를 이백의 풍을 닮았다고 하지만, 그것은 젊은 시절의 작품입니다. 말년에 쓴 시는 충담하면서도 청절하여 도연명(陶淵明)의 시와 닮았다고도 합니다.

강민우: 선생님의 시는 자연과 우국 애민의 정열이 넘치는 것이군요.

송익필: 저의 정신적 뿌리는 '직'의 철학에 있습니다. 몸가짐을 직으로 하여 행실이 곧고 말이 곧으니, 이에 현실을 비판하고 백성들과 아픔을 함께합니다. 특히 말년에는 떠돌며 전전하는 자신의 신세와 임진왜란으로 겪은 참화를 생생하게 그린 시는 두보(杜甫)에 가깝습니다.

장민우: 선생님이 남긴 450수의 시는 음풍농월을 일삼는 문인의 시와는 달리, 자신의 생애와 사상의 표출입니다. 물아를 일체화한 선생님의 사상은 자신과 백성들이 둘이 아니요, 그들이 처한 아픔을 함께하고 사회 비리를 고발하는 풍자를 잃지 않아 사회를 비추는 거울로서 기능한 것이라 할 수 있겠군요.